

# 1960년대 『학원』의 매체이념과 전략

윤현진(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)

## 1.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

- 1) 연구목적: 1952년 11월 창간호를 낸 청소년 잡지 『학원』은 시대적 격변과 출판 시장의 어려움 및 정치적 검열 속에서 중단·속간을 반복하였으나, 여러 난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간되었음 본 연구는 '1950년대 『학원』 매체 연구'의 연장선으로, 1960년대 발간된 『학원』의 매체이념과 전략을 사회·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함
- 2) 연구방법: 1960~1969년까지 발행된 『학원』 91호를 수집하여 매체에 수록된 목차와 내용을 통해 당대 사회·문화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매체의 이념과 전략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였음

## 2. 1960년대 『학원』의 매체이념

- 1) 반공주의: 정치의 이념적 양극화를 통해 정권 장악의 정당성 및 타당성을 강조

예 1) 혁명공약 : 1961년 5월 군의 매체 검열 시작 이후 10권 4호(1961년 6월호 68쪽)에 〈군사혁명의 구호〉로 첫 등장(“간접 침략을 분쇄하자!”), 이후 구체적 내용의 〈혁명공약〉을 수록

- 예 2) 같은 민주주의의 진영인 ‘일본’과의 친선을 강조

- 2) 친미(親美)적 노선: 전후(戰後) 미국과 소련의 냉전 상황을 비증 있게 다루면서 미국에 대한 ‘우호적’ 입장

예) 영미권 문학(시, 소설) 대거 번역 제공, 세계의 정세 시사에서 특히 ‘미국’의 사회, 정치, 문화, 존경할 인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음

- 3) 애국정신: 3.1운동 정신 계승을 통한 자주 독립을 강조

-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애국정신은 강조되어왔으나, 1960년대는 ‘경제회복’, ‘정권안정화’, ‘농촌계몽’에 초점을 두었음

## 3. 1960년대 『학원』의 전략

- 1) 1959년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(8권 11호 ~ 9권 3호까지) ‘종합교양지’에서 ‘순수 문예지’로 전환 시도

예) 1960년대 초기 수록 내용(9권 1호: 일기문학, 9권 2호: 영문학, 9권 3호: 작가수업)

- 이후, 다시 ‘종합교양지’로 변화된 이유는 (1) 매체 존속을 위한 전략: ‘어린이’, ‘청소년’, ‘학생’을 주된 독자층으로 삼는 타 매체와의 경쟁(대표적으로 『학생계』 등)에서 살아남기 위한 차별성 (2) 미래세대가 가진 호기심 자극(시각적 볼거리 다수 제공) 하고, 다양한 흥미, 취미 유발 요소 제공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

- 2) 매체의 상업적 변화(판매 전략)과 기초학습 강조

- 빈번한 광고 수록: 한 단락을 끝나는 지점에 한 지면을 전면을 광고로 제공하면서 자주 등장

- 독자 유지를 위한 배가 운동 실시: 독자층의 연령을 넓혀 ‘청소년’에 한정하기 보다는 ‘어린이’, ‘아동’, ‘학생’(이때 학생은 중·고등, 대학생 포함)의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독자 연령층의 확대 및 구독자 늘리기를 꾀함

- 정기구독에 대한 할인 제공

- 독자의 연령층의 확대, 폭발한 교육열의 증가에 발맞춰 ‘기초학습양성교실’ 및 ‘학습노트’ 등을 수록

- 3) 독자 참여 유도

- 기존 학원문학상, 학원장학회 유지. 이후 1960년대에는 독자에게 보다 적극적 참여를 유도

예) 독자 3대 정책, 독자 퀴즈에서 상품 제공, 전국 독자들의 목소리 공유

- 4) 다양한 ‘연재소설’을 활용에 다음 편에 대한 독자의 기대와 궁금증 유발: ‘연작소설’과 ‘사진소설’을 중심으로

- ‘7대 연재소설’로 여러 장르적 분화 시도(장수경, 2013 도서 참고)

- 특히, ‘명성’ 있는 문인이 대거 참여한 릴레이소설(연작소설) 『길』은 1호당 1회씩 총 21회 연재

- 이는 1920~1930년대 신문 매체에서 집중 기획된 방식으로(박정희, 2017 논문 참고), 1960년대 『학원』에 릴레이소설이 등장한 배경에는 (1) 『학원』의 편집자가 여러 신문 매체와 긴밀한 ‘관계’ 맺고 있었다는 점 (2) 〈새나라 신문〉을 함께 발간하고 있었던 학원사에서 『학원』 잡지가 발행된 점 (3) 『학원』에 수록된 다양한 국·내외 시사기사에 참여했던 여러 신문사의 기자와 교류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

- 사진소설의 경우, 시각적 요소 + 사진기술 접목된 사진예술과 문학의 ‘협업적 형태’의 장르이면서 ‘실존 학생’을 출연시켜 소설적 내용의 현실적 공감대를 높였음

- 사진소설은 5권 4호(1956년 4월호)부터 시작해 간간히 수록되었으나, 대체로 단편으로 그치거나 다소 짧은 내용으로 수록

- 이후 속간된 10권 1호(1961년 3월호)부터 지속적으로 수록된 ‘연재사진소설’은 연재 편수와 내용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